

▷▷▷ 2026년 10월 29일

KIWOOM 매크로 따라잡기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투자전략팀

Economist 김유미 / RA 김정현

10월 FOMC: 매파적 기조 유지, 긴축 강도는 유동적

10월 FOMC에서 연준은 기준금리를 3.75~4.00%로 동결했으나, 경기 판단을 상향하고 인플레이션 경계를 유지하며 추가 긴축 가능성을 열어뒀다. 특히 견조한 소비와 투자 확대가 이어지는 가운데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물가 압력이 연말부터 내년 초까지 지속될 가능성이 있어 연준의 매파적 기조는 유지될 전망이다. 다만 워시 의장이 향후 금리 결정 회의 횟수를 축소하고 기존 긴축의 효과와 경제지표 및 금융여건의 변화를 점검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점에서 정책 운용의 유연성도 열어둔 것으로 해석된다. 고금리로 AI 관련 자금조달이 선별적으로 이루어지는 등 신용여건에 긴축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서도 연속적이고 공격적인 금리 인상 가능성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12월 추가로 금리를 인상하겠지만, 이후 긴축 강도는 인플레이션 흐름과 신용시장 및 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될 것으로 본다. 달러화는 인플레이션 경계감과 추가 긴축 가능성이 하단을 지지하는 반면, 연준의 정책 유연성과 미국 재정건전성 우려가 상단을 제한하면서 좁은 범위에서 등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10월 FOMC에서 연준은 기준금리를 3.75~4.00%로 동결했다. 지난 9월 25bp 인상 이후 추가적인 경제지표와 기존 긴축의 파급효과를 확인하기 위한 결정으로 12명의 위원 중 2명이 추가 금리 인상을 주장하며 반대표를 행사했다. 연준은 미국 경제활동의 확장 속도를 기존 '견조한(solid)' 수준에서 '강한(strong)' 수준으로 상향 평가했으며 생산성 개선과 견조한 자본투자, 안정적인 고용여건에 대한 긍정적인 판단을 유지했다. 반면 인플레이션은 여전히 높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평가하면서 물가안정에 대한 경계감을 지속했다. 이번 회의는 견조한 성장과 높은 인플레이션을 고려해 긴축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추가 인상에 앞서 경제 및 금융여건의 변화를 확인하겠다는 신중한 정책 대응으로 평가된다.

특히 케빈 워시 연준 의장은 기자회견에서 향후 통화정책 결정 과정의 유연성을 강조했다. 2027년부터 연간 8차례의 FOMC 회의 중 1차례를 금리 결정과 정책 성명 발표 없이 장기 통화정책 전략을 논의하는 회의로 전환하고, 2028년에는 이러한 회의를 2차례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는 정례적인 금리 결정 기회를 일부 줄이는 조치로, 매 회의에서 금리 조정 가능성을 열어두기보다 경제상황과 물가 흐름, 금융시장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면서 정책을 운용하겠다는 의지로 해석할 수 있다. 특히 추가적인 경제지표 확인의 필요성을 강조한 점은 긴축 기조 자체에는 변화가 없지만 공격적인 금리 인상보다는 기존 정책의 효과를 점검하면서 긴축 속도를 조절할 가능성이 높아졌음을 시사한다.

금융여건에 대한 평가에서도 이러한 정책적 유연성이 확인된다. 워시 의장은 9월 금리 인상 이후 금융 및 신용여건이 일부 긴축적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전반적인 금융여건이 충분히 긴축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평가했다. 특히 미국 경제 성장의 핵심 동력인 AI 투자 사이클과 관련해 높은 자본조달 비용으로 금융시장에서 투자 대상과 자금 공급에 대한 선별이 강화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고금리의 긴축 효과가 실물경제 전반의 급격한 위축보다는 투자 수익성과 재무건전성에

다른 자금 배분의 차별화로 나타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과정은 무분별한 투자 확대를 억제하고 자본 배분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점에서 긍정적이지만, 신용여건의 긴축이 과도해질 경우 AI 관련 설비투자과 기업의 투자 여력을 제약하면서 성장 모멘텀을 둔화시킬 가능성도 존재한다. 따라서 연준이 인플레이션뿐 아니라 고금리가 금융시장과 신용 공급, 나아가 실물경제 성장에 미치는 영향까지 고려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에서 연속적이고 공격적인 금리 인상 가능성은 제한적일 것으로 본다.

물론 인플레이션에 대한 경계가 완화됐다고 보기는 어렵다. 국제유가가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에너지 가격 상승의 영향으로 미국 헤드라인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연말부터 내년 초까지 재차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특히 견조한 소비와 투자 확대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에너지 가격 상승이 다른 재화와 서비스 가격으로 확산될 경우 물가안정 목표 달성을 위한 추가 긴축의 명분이 강화될 수 있다. 이에 따라 12월 FOMC에서 25bp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은 여전히 열어둘 필요가 있다.

다만 고금리의 누적 효과가 신용시장과 기업의 자금조달 여건에 점진적으로 반영되고 있다는 점에서 연준이 연속적이고 공격적인 금리 인상에 나설 가능성은 제한적이다. 내년 초까지 물가 상승 압력이 지속되면서 연준의 매파적 성향은 유지되겠지만, 신용 부문의 불안과 투자 위축 가능성 역시 정책 결정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금융시장은 이러한 정책 기초의 변화를 일부 안도 요인으로 받아들인 것으로 평가된다. 12월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이 유지되고 있음에도 향후 FOMC 회의 운영 방식의 변화와 금융 및 신용여건에 대한 연준의 인식이 부각되면서 공격적인 긴축에 대한 우려가 완화됐다. 이에 단기 국채금리는 하락하고 달러화의 추가 상승은 제한된 반면, 장기 국채금리는 상승하는 차별화된 움직임이 나타났다. 이는 단기적으로 연준의 연속적인 금리 인상 가능성이 낮아졌다는 인식이 반영된 가운데 장기적으로는 견조한 성장과 인플레이션 위험, 재정 부담에 따른 기간프리미엄 상승 압력이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단기금리 하락과 장기금리 상승이 동시에 나타난 것은 연준의 정책 유연성 확대에 대한 기대와 중장기 물가 및 재정 위험에 대한 경계가 공존한 결과로 해석된다.

향후 달러화는 뚜렷한 추세를 형성하기보다 제한된 범위에서 등락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 미국의 견조한 성장과 인플레이션 압력, 12월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은 달러화의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겠지만 연준의 공격적인 긴축 가능성이 낮아진 가운데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와 장기 국채 공급 부담은 달러 강세를 제한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장기금리 상승이 성장 기대보다 재정위험과 기간프리미엄 확대에 기인할 경우 금리 상승이 반드시 달러 강세로 연결되지는 않을 수 있다. 이에 따라 달러화는 인플레이션과 통화정책에 대한 경계감이 하단을 지지하는 반면, 금융여건의 긴축과 재정 불확실성이 상단을 제한하는 흐름을 보일 전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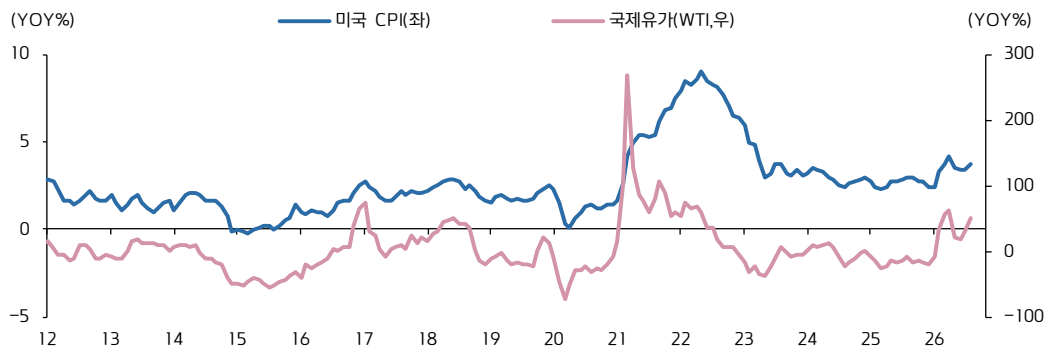
10월 FOMC는 추가 긴축 가능성을 유지하면서도 고금리의 누적 효과와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정책 운용의 유연성을 높이려는 의지를 확인한 회의로 평가된다.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물가 압력을 고려하면 12월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은 여전히 높지만, AI 투자 사이클의 지속성과 신용여건의 변화까지 감안할 때 연속적이고 공격적인 긴축이 장기화될 가능성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기준금리와 근원 PCE물가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미국 소비자물가와 국제유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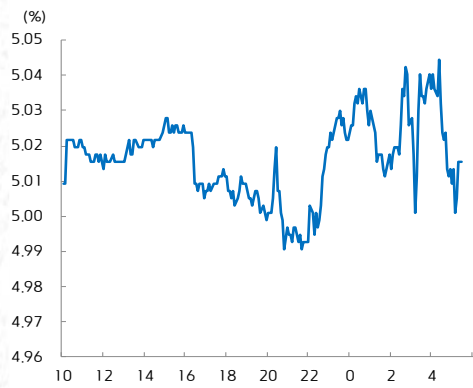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미국 기준금리와 실업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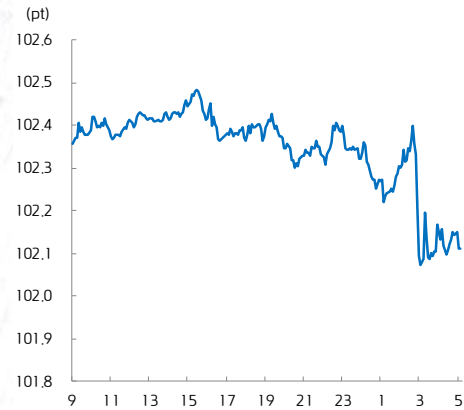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미국 국채금리(10년) 장중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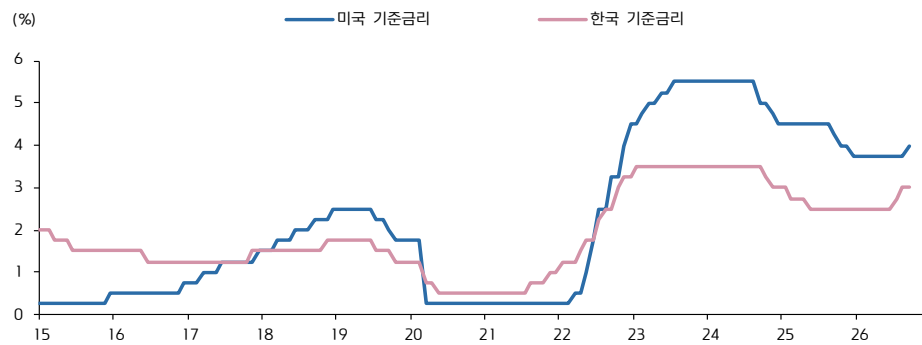


달러인덱스 장중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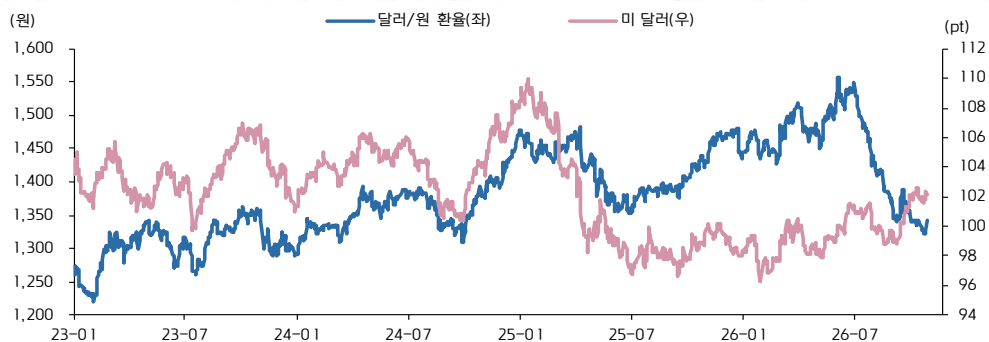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미국과 한국 기준금리 추이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달러인덱스와 달러/원 환율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동 자료에 개시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고지사항

-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고,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조사분석자료는 유가증권 투자를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당사 고객에게 배포되는 참고자료로서, 유가증권의 종류, 종목, 매매의 구분과 방법 등에 관한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 될 수 없습니다.
 - 본 조사 분석자료를 무단으로 인용, 복제, 전시, 배포, 전송, 편집, 번역, 출판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